

내 이마 위에 붉은 팔

팔의 어감은 “팻” 하고 내뺄는 느낌이다. 무언가 속에 뭉친 것을 순간적으로 뺄어내는 행위가 연상된다. 정말 속이 더부룩한 사람은 팔으로 씻어내야 편해진다고 한다. 또 액운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마에 붉은 점을 찍듯이, 동지에는 붉은 팔죽을 먹는다. 이처럼 팔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곡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정정엽이 단지 팔을 통해 먹을 것을 일구는 농사에 대해 헌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이미 팔의 붉은색이 주는 상상력과 에너지는 오랫동안 형성된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 보는 이에게 더욱 강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정엽은 이 붉은 씨앗에서 내용적인 의미를 찾고, 조형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이 ‘살림을 사는 여성’인 것에서 찾는다. 곡식으로 밥을 짓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치 농사를 짓는 행위와 같고, 하찮게 보이는 일상이지만 이 속에 새로운 시작과 발전이 숨어 있으므로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하다. 정정엽은 이러한 이유로 곡식에 관심을 가졌고, 그중에서도 붉게 존재하는 삶의 에너지와 작고 섬세한 이미지를 통해, 그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저항임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팔을 소재로 선택했다고 한다. 사실 일상은 그 반복성으로 인해 매우 지루하고, 비천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정엽은 하찮은 곡식 알갱이에 자신의 일상과 내적인 흐름을 담아내어, 결국 ‘일상의 위대함’을 끌어내고자 한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말처럼, 일상은 매일 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것이지만, 이 속에는 위대함이 잠재한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화면에서 팔알로 치환하여 매일, 매일 화면에 집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반복되는 점처럼 일상의 풍경과 장소에 흘러 넘치는 팔들은 그의 일상이자 집, 작업실 같이 우리의 몸과 살림(生)의 근본을 이루는 것들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의 기존 작품에서 팔은 매우 밀도 있고 집약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또 이 덩어리진 형상은 육즙이 밴 고깃덩어리 같은 섬뜩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 선보이는 팔들은 좀더 투명하고, 밝아졌다. 그렇다고 붉은 에너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지, 골목길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삶의 편린들 속에서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팔의 대공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미미하고 나약한 씨앗들은 거대한 덩어리로 모여들어, 붉은 색 꿈틀거리는 에너지를 뿜으며, 우리의 삶이 되풀이되는 공간을 용암처럼 뒤덮으려 한다. 즉 집적된 팔의 형상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팔들이 일상적인 공간이나 사물과 섞이거나 흩어져, 마치 이야기 속을 부유하며 공간을 점거해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의 공간까지 흘러넘친 팔은 모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정정엽의 매일, 매일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의 일상이 조형적으로 응축된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가능성을 품은 존재들로 화면에 되살아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습에 나선 팔들은 정정엽의 이야기인 썸이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작가의 일상과 시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복되는 점이나 선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탐했던 여타의 작품들과 차별 짓게 하는 중요한 점이기도 하다. 마치 내러티브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소재

에 내러티브 구조를 함축시켜고 이를 사실적 묘사와 함께 계속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잠복되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팔의 대공습’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날마다 그린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처럼 캔버스에 차곡, 차곡 쌓이는 것이며, 이 속에는 한 작가로서 정정엽이 바라보는 현재 한국의 사회, 삶이 팔알들로 압축되어 쌓여 있다. 이 속에는 일상을 기록하는 작가의 질긴 열정과 애정도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그의 팔도 우리 이마 위에 놓아 본다면, 현재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답답한 가슴을 “팻” 하고 내뱉게 해줄 지도 모르겠다.

강수정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월간미술》 2009년 5월호 리뷰